

# 모터쇼 대신 온라인으로... 미래비전 선보이는 후입계

현대차 EV 콘셉트카 프로페시 공개 내부 디자인 자율주행에 맞게 구성

폴크스바겐 온라인 생중계 마련 전기 SUV ID.4로 전동화 본격시작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잇따라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내놓고 있다. 취소된 2020 제네바모터쇼를 대신해 각자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설레게 했다. 당장 출시할 미래형 모빌리티도 적지 않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E-V 콘셉트카인 프로페시를 3일 공개했다. 당초 제네바모터쇼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행사가 취소되면서 온라인으로만 선보이게 됐다.

프로페시는 전동화된 미래차 디자인을 한층 더 구체화하는데 주력했다. 현대차 디자인 철학 '센슈어스 스포트니스'를 따르면서도 공기역학에 비중을 높여 효율을 극대화했다.



현대차 콘셉트카 프로페시.

/현대자동차



폴크스바겐의 첫 전기 SUV ID.4.

/폴크스바겐

특히 내부 디자인이 전동화와 자율주행에 걸맞게 짜여졌다. 스티어링 휠이 조이스틱으로 대체됐고, 자율주행시 휴식모드를 작동하는 모습도 구현해냈다.

현대차디자인센터장 이상엽 전무는 "현대차가 추구하는 '인간과 자동차 사이에 감성적 연결성이 부여되는 긍정적인 미래'를 자동차 디자인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폴크스바겐은 제네바모터쇼가 취소됐음에도 따로 온라인 생중계를 마련했

다. 승용차 브랜드 최고운영책임자 랄프 브란트슈타터와 기술개발담당 총책임자 프랭크 웰쉬 박사도 무대에 세웠다.

폴크스바겐은 '디젤게이트' 이후 2020년을 전동화 원년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다양한 친환경 계획을 수립한 모습이다.

일단 약속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전동화 전략을 시작한다. 주력 무기는 ID.4다. ID.4는 폴크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기반으로 한 순수 전

기 SUV로, ID.크로스 콘셉트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최대 주행거리는 500km 수준으로, 올해부터 중국과 미국에서 생산돼 전 세계로 판매될 예정이다. AC/DC 2가지 충전 방식을 갖췄으며, 후후 4륜구동을 추가할 계획이다. 생산 과정도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였다.

전동화 모델인 'ID패밀리' 전략도 가속화한다. ID.3 고객 인도를 올 여름으로 못박았고, MEB 플랫폼을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도 허용하겠다는 계획도 밝

혔다. 미국 포드사가 첫번째로 MEB 플랫폼으로 전기차 출시를 시작할 예정이며, MEB 플랫폼 기반 차량은 2023년부터 6년여간 60만대에 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폴크스바겐 자체적으로도 2024년까지 330억유로(약 43조원)를 투입해 E-모빌리티를 추진하며 2025년까지 전기차 150만대를 생산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츠비카우 공장은 2021년부터 연간 33만대 전기를 생산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배터리 셀 생산 계획도 있다. 스웨덴 '노스볼트'라는 회사와 합작했으며, 2021년부터 잘츠기터에 16GW(기가와트) 시간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자동차 업계는 제네바 모터쇼에서 친환경 모델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BMW가 뉴3시리즈 PHEV 모델을, 메르세데스-벤츠가 새로운 컴팩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모니터 화면 왼쪽부터 삼성SDS 홍원표 대표, 임수현 전략기획담당, 홍혜진 블록체인센터장과 이스라엘 헤르즐리아에 위치한 크레도락스의 모세 셀핀 CTO, 임종철 삼성SDS 유럽법인장, 이갈 로템 크레도락스 CEO 등이 3일(현지시간) 영상회의를 통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삼성SDS

## 삼성SDS, 이스라엘 크레도락스 협약 '블록체인·RPA'로 유럽시장 공략

(로봇업무자동화)

넥스레저 유니버설 적용  
보안·속도·신뢰성 등 향상

삼성SDS가 이스라엘 기업과 손잡고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SDS는 3일 이스라엘 크레도락스와 블록체인 및 로봇업무자동화(RPA) 솔루션 기반 지급결제 플랫폼 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크레도락스는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지급, 정산 등 거래 처리를 위한 서비스를 유럽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크레도락스는 자사의 지급결제 플랫폼에 삼성SDS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 유니버설을 적용해 보안, 거래처리 속도, 신뢰성 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넥스레저 유니버설은 삼성SDS 자체 분산합의 기술(NCA)과 범용 블록체인 기술인 하이퍼레저 패브릭, 이더리움 등에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표준(API)을 제공하며, 클라우드 기반으로 손쉽게 이용하고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코로나 뚫은 'XM3'... 사전계약 5500대

SAMSUNG  
르노삼성자동차

방문자 감소 온라인 판매로 극복  
노조 파업 거론... 생산중단 우려

르노삼성자동차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내놓은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XM3'의 초반 인기가 예상치 못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와 노사갈등이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르노삼성이 신차 부재로 내수 판매 부진을 겪었다는 점에서 XM3는 내수 판매 회복과 수출 물량까지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4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XM3는 사전계약 12일 만에 5500대 계약되며 초반 흥행 몰이에 '청신호'를 켜다. XM3는 르노그룹과 다임러가 공동개발한 신형 엔진 고성능 'TCe 260'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TCe 260은 전체 계약 중 85.8%를 차지해 르노그룹의 새로운 주력엔진으로 당당한 첫 걸음을 뒀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장방문자가 감소



르노삼성 XM3.

한 상황에서 이같은 사전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비결 온라인 판매 덕분이다. 르노삼성은 지난 2016년 국내 완성차 최초로 온라인 판매를 도입했으며 온라인 계약이 25%를 넘어섰다.

다만 XM3의 흥행을 위해서는 노조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르노삼성 노조는 회사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동참하기는커녕 XM3 생산차질을 유발시킬 파업을 거론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8% 인상과 노동 강도 완화를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사측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사측은 '일시금 850만원 지급과 기본급 10만원 인상'까지 제시한 상태지만 노조는 지난해 19

일 교섭에서도 사측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노사는 지난 3일에도 협상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노조가 기존 임단협 외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파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새롭게 회사에 요구하면서 협상이 복잡해졌다. 노조는 이른바 '노사상생기금'이라는 명목상의 기금을 만들어 파업 참여 조합원의 손실 금액을 보전해주자는 입장이지만 회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XM3의 가격은 1.6GTc 1719만~2140만원, TCe 260 2083만~2532만원(개소세 1.5% 기준)이다.

/양성운 기자 ysw@

## 기아차, 개인사업자 위한 구매지원 실시

납입금 면제·기프트카드 증정 등 혜택

기아자동차가 개인사업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덜어줘 소비 활성화까지 노린다.

기아차는 4일 '개인 사업자 지원 구매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 구매 비중이 높은 모닝과 레이, 카니발과 봉고 1t(톤) 차종을 대상으로 한다. 36개월 할

부 중 초기 6개월 월 납입금 면제, 20만원 상당 기프트카드 증정 등 혜택을 제공한다. 선수를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침체된 경기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 고객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개인 사업자 지원 구매 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됐다"며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기여하는 기아차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 '볼보 XC90' 잔존가치 71.5%... 벤츠·BMW보다 높아

SK엔카 수입 대형 SUV 10종 조사

국내 수입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에서 볼보 XC90의 잔존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SK엔카닷컴에 따르면 SK엔카닷컴에 등록된 인기 수입 대형 SUV 10종의 잔존가치를 조사한 결과 볼보 XC90이 잔존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10종 모델의 평균 잔존가치는 57.9%이다. 잔존가치 조사 대상은 대형 혹은 준대형 SUV로 벤츠 GLE, BMW X5, 볼보 XC90,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렉서스 RX450h, 지프 그랜드 체로키, 캐딜락 에스칼레이드, 포드 익스플로러, 포르쉐 카이엔, 혼다 파일럿(가나다순)의 2017년식 4WD 모델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잔존가치가 가장

높은 모델은 볼보 XC90으로 71.5%의 잔존가치를 기록했다. 이번 대상 모델 중 유일한 하이브리드 SUV인 렉서스 RX450h의 잔존가치는 65.9%로 두번째로 높았다. 세번째로 높은 모델은 벤츠 GLE로 잔존가치는 62.5%로 나타났다. BMW X5의 잔존가치도 60.2%로 평균보다 높았다.

/양성운 기자